

우리나라 흡연실태 및 금연 활동

“금연은 시대적 조류”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의 흡연왕국이다. 최근까지 68.2%였던 15세 이상 남자의 흡연율은 지난 2000년 갤럽 조사에서는 67.2%로 다소 내려가기는 했지만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6~7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태이다. 이는 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을 포함해서 국민 보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높은 흡연율로 인해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관대함과 가정에서의 무관심은 청소년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연간 담배소비량 1000억 개피 흡연률, 중·장년층 감소, 20~30대 증가

최근 담배인삼공사가 통계 낸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워대는 담배는 모두 1000억 개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담배 소비량은 지난 45년에 1백 23억8천만 개피에서 96년에 1천44억5천만 개피로 무려 8.4배 증가했다.

또 금연운동 협의회의 조사에서 성인의 연도별 흡연율의 변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지난 80년 79.3%에서 99년에는 65.1%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80년 12.5%에서 99년 4.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 다른 나라의 흡연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흡연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령층은 40

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과 관련, 연구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20, 30대 연령층의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대 남자의 경우 70.4%, 30대는 71.3%로 매년 7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만큼의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흡연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 흡연, 사회문제로 대두 여중생 75.9% 하루 5개피 이하

청소년의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지난 88년 23.9%에서 99년 32.6%로 그 수가

건강 증진법에는 담배를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각종 유해물질의
판매, 판촉 그리고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여학생도 91년 2.4%에서 99년 7.5%로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도 남학생이 지난 88년 2.7%에서 99년 6.2%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도 91년 1.2%에서 99년 3.1%로 흡연율이 두 배가 훨씬 넘어서고 있는 등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운동 협의회가 지난 99년 중·고등학교 흡연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의 70.8%가,

중학교 여학생의 75.9%가 1일 평균 5개피 이하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학생의 45.1%가 5개피 이하를, 36.9%가 6~10개피를 하루에 피우며 여학생의 53.8%가 5개피 이하를, 38.5%가 6~10개피를 피워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20세 이상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영양조사')은 17.53개피를 기록했다. 남자는 11~20개피를 피우는 경우가 57.26%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1~10개피가 61.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 비해 금연운동 20~30년 늦어 협의회 발족, 금연운동 활성화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증가된 원인으로 △군대에서 무상보급 △영화, TV 등의 대중매체의 영향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가격의 저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금지 외면 등 법 준수 의식 부족 △지방자치제의 재정과 담배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은 한국소비자연맹과 같은 소비자단체, 학자들이 산발적으로 금연에 관심을 두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기는 지난 88년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발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20~30년이 늦은 감이 있지만 12년째 되는 올해까지 마스크를 통해서 꾸준히 담배의 해로움을 부각시켜왔고 담배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규제 포함 아태금연대회, 금연운동 성과

주요성과로는 88년 '담배와 건강' 지를 창간하면서 현재는 '담배없는 세상'으로 제호를 변경, 7월 현재 133호를 발행하고 있다. 88년 12월 담배갑 경고문의 강화, 90년 12월 공중위생법 개정 때 흡연구역지

정을 법제화, 91년 8월 제2차 APACT(Asia-Pacific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 아·태 금연대회) 개최, 91년 10월 '91말보로컵 테니스대회 저지운동, 92년 7월 금연열차운행, 1992년 7월 부천시의회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제정에 이어 강남구, 종로구, 부산시의회가 조례통과 등 직, 간접적인 성과가 있었다.

**담배광고 전면금지, 행사 후원금지,
금연구역·흡연구역 확대 설정 및 관리,
감독의 의무 등 법의 취약점을 빨리 보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큰 성과로는 95년 8월에 담배의 광고, 판촉활동 등을 가능케 해 한국의 금연운동 전개에 걸림돌이 됐던 '한·미 담배양해록'을 개정함으로써 금연정책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을 탄생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난 94년 12월에 국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 95년 9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 건강증진법에는 담배를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각종 유해물질의 판매, 판촉 그리고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담배로부터 일정액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여 이를 금연운동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 2020년 까지 55%대로 흡연을 낮추는데 적극 홍보 주력

세계보건기구는 이 지구상에서 한 해에 3백50만명이 담배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1천1백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사망자 중의 70%가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며 아직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담배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나서서 금연운

동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담배인삼공사를 운영하는 나라로서 예외에 속했으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처음 금연활동에 관한 시책을 내놓고 2020년까지는 현재의 68.2% 흡연율을 55%까지 낮추겠다고 천명하면서 금연홍보사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흡연 위해성 인식 필요 간접흡연 심각성 일깨워야

흡연자가 다수인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된 규제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시켜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일깨워 혐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금연운동의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주인은 국가이므로 광고나 판촉을 많이 하지 않아서 법의 미비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법을 피해서 광고와 판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맹점이 많다. 담배광고 전면금지, 행사 후원금지, 금연구역·흡연구역 확대 설정 및 관리, 감독의 의무 등 법의 취약점을 빨리 보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감독 등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담배값 인상,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금연교육을 전담할 금연지도자 양성, 흡연피해 소송의 지원 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흡연자 위한 '금연학교' 상당수 생겨나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대로 99년도에 정부가 금연정책을 발표, 오는 2003년까지 흡연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금연운동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최근에는 성인 흡연자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자를 위한 '금연학교'도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 또 일

반인을 중심으로 한 금연관련 동호회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금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에 관한 국제적 규제조약(FCTC)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구를 가동시켰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에 관한 국제적 규제조약(FCTC)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구를 가동시켰다. 이 규제에서는 가격과 세금, 밀수, 세금면제 상품, 광고와 후원, 독극물과 성분의 조사와 보도, 담배갑 디자인과 표시, 담배와 농업정책, 정보의 협조와 공유 등 8가지 분야에서 세계적 규제 지침을 만들어 각국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2003년까지 조약이 완성되면 세계적인 흡연율 감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흡연율 감소도 전망할 수 있다. 담배에 관한 한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는 역행할 수 없을 것이다.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실

금연교실	주 소	전화번호
한국금연(금주)교육연구소 강원금연교육원	강원도 인제군 연제읍 덕적리 214	033)462-3036
경희대의료원 가정의학과 국립의료원 홍보내과	서울시 등대문구 회기동 1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0	02)958-8691,2 02)2260-7284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대구계명대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041)232-9907 053)250-7548
부산위생병원 건강교육과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382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5	051)248-5151 02)950-1150 02)2270-0098
서울위생병원 건강교육과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가정의학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02)2210-3616 02)2224-3817
인성 5일금연학교 연세의료원 가정의학과 우리누리청소년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92-9 삼원빌딩 401호	031)575-3019 02)361-5822 031)217-3404
울산 5일금연학교 전주금연교실(전북대)	울산시 남구 무가2동 1530-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2-20	052)277-1829 063)286-4273
한국금연교육원 한국금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 부산시 동구 좌천동 688-2 일신빌딩 602호	02)501-6446 051)637-1939